

# 宗廟樂章의 發音法(Diction)에 관한 考察

金 靜 子

(서울大 국악과 교수)

## 〈目 次〉

- |             |               |
|-------------|---------------|
| I. 머리말      | 2. 有聲子音 「ㄴ」   |
| II. 母音 發音法  | 3. 有聲子音 「ㄹ」   |
| 1. 單母音      | 4. 有聲子音 「ㄱ」   |
| 2. 重母音      | 5. 有聲子音의 特例   |
| III. 子音 發音法 | 6. 「ㅎ」 발음의 삽입 |
| 1. 有聲子音 「ㅇ」 | IV. 맺음말       |

## I. 머리말

宗廟祭禮樂의 樂章은 傳來하는 우리나라 성악곡 중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 모음곡이다. 이 종묘악장은 원래 조선조 世宗代에 만들어진 성악곡으로서 순 漢文 가사로 되었고 作詞者는 밝혀져 있지 않으며, 그 음악은 새로 창작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던 고취악(鼓吹樂)과 향악(鄉樂)에 基因하여 만든 것이다.<sup>1)</sup> 이 종묘악장은 역대 祖宗의 文德을 칭송한 保太平 11曲과 武德을 찬양한 定大業 15曲으로서 원래 세종대에는 文舞와 武舞에 쓰였으나<sup>2)</sup> 世祖代에 와서 종묘제례악으로 채용되면서 가사의 字句가 많아서 협화가 어렵다는 이유<sup>3)</sup>로 曲數도 줄어들고 가사의 句數도 생략되어서 전해 내려왔다. 그리고 조선조 말엽 고종대에 日帝의 강압으로 보태평 정대업을 保太和 亨萬年으로 이름을 바꾸고 가사도 몇 군데 고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

1) 李惠求 譯註, 「세종장헌대왕실록」 22 악보 I, pp. 73-74.

2) 李惠求, 앞의 책

3) 김기수 엮음, 「보태평·정대업의 악장과 일부보」(국립국악원, 1971), p. 3.

다.<sup>4)</sup> 오늘날 국립국악원에서 부르고 있는 종묘악장은 일제시대에 고쳐진 가사로서 그 악보는 故 김기수 위음의 보태평 14曲(迎神熙文~繹成)과 정대업 13曲(昭武--送神興安樂)이 井間譜로 기록되어 전해져 오고 있다.

필자는 故 김기수 선생으로부터 종묘악장을 직접 배웠는데 그때 배운 종묘악장의 발음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종묘악장 전체의 발음(Diction)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하여 日帝治下에서 고쳐진 종묘악장 가사를 다시 세조대의 가사로 환원하여 부르는데 이 발음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오늘날 春秋로 행하여지고 있는 종묘제향에서 종묘악장 본연의 가사를 도로 찾아 부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母音 發音法

### 1. 單母音

종묘악장에서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글자는 악곡별로 다음과 같다.

保太平

- 1) 迎神熙文—我, 後, 於, 昭, 綏, 思
- 2) 奠幣熙文—菲, 可, 交, 是, 祖, 其, 顧
- 3) 進饌—我, 俎, 豆, 既, 且, 和, 奏, 孝, 祀, 其, 右, 維
- 4) 引入熙文—祖, 胎, 謨, 美, 維, 以, 矢, 歌
- 5) 基命—於, 惟, 我, 祖, 浮, 徙, 附, 基
- 6) 歸仁—有, 道, 與, 區, 可, 于, 屠, 其, 如, 市, 匪, 我, 之, 私, 履, 綏
- 7) 亨嘉—與, 我, 祖, 祗, 武, 志, 斯, 以, 嘉, 維
- 8) 輯寧—維, 府, 吏, 之, 未, 堵, 流, 離, 是, 荷
- 9) 降化—我, 祖, 維, 自, 西, 以, 之, 於, 邇, 安
- 10) 顯美—那, 我, 考, 綏, 謳, 歌, 與, 美
- 11) 烈光貞明—時, 虞, 有, 惟, 圖, 于, 苞, 休, 謨, 與, 佑, 無

---

4) 김기수, 앞의 책

- 12) 重光－我，祖，至，昭，誣，止，受，後，悠，久  
 13) 大猷－祖，敷，綏，四，既，備，猷，荷  
 14) 繹成－求，維，救，猷，右，既，九，昭，美

定大業

- 1) 昭武－我，祖，昭，武，庶，無，是，歌，且，舞  
 2) 篤慶－於，我，祖，牙，于，其  
 3) 濯征－之，豪，據，我，祖，于，狙，其  
 4) 宣威－咨，豈，馭，度，之，焘，然，餘，昊，扈，胡，我，祖，武  
 5) 神定－于，虎，貔，鼓，飛，九，又，奇，斧，自，糜，斯，破，我，支，耆，武，之  
 6) 奮雄－有，斯，如，胡，奏，妖，無，侮  
 7) 順應－麗，主，拒，我，師  
 8) 寵綏－旗，多，助，休，士，女，我，綏，壺，既  
 9) 靖世－彼，孤，禍，機，我，考，幾，謀，以  
 10) 赫整－利，雨，自，孝，有，嗣  
 11) 永觀－於，惟，祖，有，武，可，舞，止  
 12) 撤邊豆－于，豆，有，其，假，我，既，告，維  
 13) 送神興安樂－祀，度，而，未，幾，我，馭

上記한 종묘악장의 많은 單母音 글자 중에서 어(於)와 기 5字(既, 基, 其, 奇, 幾), 비(禩)字 등은 다른 단모음과 같이 요사이 발음하는 대로 발음하지 않고, 於是 「오」로 既, 基, 奇, 幾, 其는 「그이」로 禩는 「부이」로 풀어서 발음한다.

○ 於(於昭想形聲, 於惟我祖 於赫厥靈 於我先祖 於惟列祖)

於字는 현행 종묘악장에서 모두 5번 출현하는데 예외없이 「오」로 발음된다. 於字는 어조사, 居也, 代也, 往也의 뜻으로 쓰일 때는 「어」로 발음되지만 歎辭로 쓰일 때는 「오」로 발음된다. 이 종묘악장에 쓰인 於字는上記 例文에서 보이듯이 歎辭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종묘악장에 나오는 於字는 어조사의 「어」로 발음하지 않고 감탄사의 「오」로 발음하는 것이다.

○ 既(俎頭既登, 制作既明備 既樂穢惡 我禮既成)

既字는 종묘악장에서 모두 4번 출현하는데 예외없이 「그이」로 풀어서 발음한다. 既字는 己也, 盡也, 小食의 뜻이 있고 예전에는 「기」로 발음되던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날 발음대로 「기」로 바뀌어진 것이다. 필자가 소유하고 있는 “附音考 漢辭文 新玉篇”은 겉표지가 너무 낡아서 그 출판 연대를 알 수 없으나 대략 왜정 이전에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옥편에는 既字를 임의 기, 다할 기, 적게 먹을기로 기록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종묘악장의 既字의 발음은 옛 발음대로 중모음 「기」로 쓰여졌으므로 「그이」로 풀어서 노래하는 것이다.

○ 其(先祖其(기)顧歆. 維神其(기)右. 其(기)從如市. 遼篇其(그이)慶 有鉶其(기)香)

其字는 종묘악장에서 모두 5번 나오는데, 정대업 독경의 遼篇其慶에서만 「그이」로 풀어서 발음하고 나머지 4번은 전부 단모음 「기」로 발음하였다. 其字는 기기指物辭, 語助스기, 일흠 기, 地名祝其의 뜻이 있는데 遼篇其慶에서의 其字는 일흠 기의 뜻으로 쓰여서 중모음 「기」를 「그이」로 풀어서 발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用例의 其字는 모두 단모음 「기」로 발음되었는데 이 때에 출현한 음들은 黃 혹은 潢 한 음이거나 혹은 南의 장식음을 수반한 汰음이고, 遼篇其慶의 其字에 붙은 음은 한 음이 아니고 첫음 無에서 「그」로 발음하여 2도 위 장식음을 거쳐 仲으로 下行하면서 「이」를 붙이는 一字多音 進行을 하고 있다.

○ 基(基我永命)

基字는 基命에서 단 한 번 나오는데 요사이 발음같이 단모음 「기」로 발음하지 않고 악장에서는 「그이」를 풀어서 발음한다. 基字는 터기地也, 근본기本也, 기업기業也, 호미기耨鋤也, 풍류이름기樂名立其의 뜻이 있다. 이 악장의 基字는 既字와 같이 옛날 발음이 중모음 「기」였으므로 종묘악장에 나오는 基字는 모두 「그이」를 풀어서 발음하는 것이다.

○ 奇(正又奇)

奇字는 神定에서 단 한 번 나오는데 기이할기異也, 괴홀할기詭也, 짝안맞을기不偶, 령수기零數, 증생이름기獸名窮奇의 뜻이 있다. 종묘악장의 奇字는 옛날 발음 그대로 「기」로 발음하므로 「기이」로 풀어서 노래한다.

○ 熨(元餘熨屬)

熨字는 宣威에서 단 한 번 나오고 「부이」로 발음하는데 장대할비壯也, 성낼비怒

也, 꺾박할비迫也의 뜻이 있다. 鬯字는 옛날 발음도 단모음 「비」인데 「부이」로 풀어서 발음하는 것은 출현음이 한 음이 아니고 여러음이 나오는 適篤其慶의 其字 진행과 같이 첫음 無에서 「부」로 발음하여 2도 위 장식음을 거쳐 仲으로 下行할 때 「이」를 붙인다.

○ 幾(克炳幾(그이), 洋洋未幾(기))

幾字는 종묘악장에서 두 번 나오는데 靖世에 나오는 幾는 「그이」로 풀어서 발음하고, 送神樂에 나오는 幾는 「기」로 발음하는데 적을기微也, 위태할기危也, 기약할기期也, 자못기殆也, 갓가을기近也, 거의기尙也, 살필기察也의 뜻이 있다. 그런데 克炳幾에서 幾字의 발음은 옛 발음대로 「그이」로 풀어서 발음하는데 適篤其慶의 其와 鬯字의 例와 같이 장식음 夾을 수반한 林 첫음에서 「그」로 발음하고 다음 출현음 仲에서 「이」를 붙여 지속한다. 洋洋未幾의 幾字는 장식음 太를 수반한 林 한음뿐이고 다른 음이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옛 발음대로 「그이」로 풀어서 발음하기 보다는 「기」로 발음하기가 훨씬 편한 이유인 것 같다.

위에서 살펴본 既, 基, 奇, 幾字들은 오늘날은 단모음인 「기」로 발음되고 있으나 종묘악장에서는 옛날 발음대로 중모음 「기」로 쓰여져 「그이」로 풀어서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가 옛날 발음대로 중모음 「기」일지라도 출현음이 한음 뿐일 때는 「그이」로 풀어서 발음하지 않고 「기」로 발음되는 例도 있었고, 원래 발음이 「기」나 「비」일지라도 출현음이 一字多音으로 진행될 때는 「그이」나 「부이」로 풀어서 발음되는 例도 있었다.

## 2. 重母音

종묘악장의 중모음 발음법은 중모음을 풀어서 발음하는 방법과 두 모음이 동시에 겹쳐서 발음되는 대로 발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1) 중모음을 풀어서 발음하는 방법

#### (1) 「의」를 「으이」로 풀어서 발음하는 방법

가. 一字多音으로 첫음에서 「으」로 발음하고 다음 출현음에서 「이」를 붙여 지속하는 例

전폐회문－儀

형가, 현미, 열광정명, 정세－猗

중광, 독경－蘆(회)

선위－颯(회)

충유－義



<악보 1>

나. 一字一音으로 처음에 「으」로 발음하고 그 拍의 중간에서 「이」를 붙여 지속하는 例

용화－義

(2) 「외」를 「오이」로 풀어서 발음하는 방법

가. 一字多音으로 처음에서 「오」로 발음하고 다음 출현음에서 「이」를 붙여 지속하는 例

영신회문－蕢(뇌)

용화－懷(회)

중광－賴(뇌)

송신악－回

나. 一字一音으로 처음에 「오」로 발음하고 그 拍의 중간에서 「이」를 붙여 지속하는 例

열광정명－會, 懷, 賴

분옹－摧(최)

(3) 「애」를 「아이」로 풀어서 발음하는 방법

가. 一字多音으로 처음에서 「아」로 발음하고 다음 출현음에서 「이」를 붙여

지속하는 例

기명, 총유-海

형가, 대유, 역성, 혁정-大

총유-載, 乃

칠변두-耒, 僂

나. 一字多音으로 처음에 「아」로 발음하고 그 拍 중간에서 「이」를 붙여 지속하는 例

귀인-乃

열광정명-配

(4) 「위」를 「우이」로 풀어서 발음하는 방법

가. 一字多音으로 첫음에서 「우」로 발음하고 다음 출현음에서 「이」를 붙여 지속하는 例

기명, 귀인-歸

신정-爲

분웅-揮

영관-委

(5) 例外로 선위의 乖(괴)나 魁(괴)는, 上記한 前例와는 달리 「고이」로 중모음을 풀어서 발음하지 않고 곧 바로 「괴」로 발음한다.

2) 重母音を 풀어서 발음하지 않는 방법

(1) 처음부터 「애」로 발음하는 例

신정-愾(개)

분웅-迺(내)

열광정명-裁(재)

중모음 「애」는 대개 「아이」로 풀어서 발음하였는데 愾, 迺, 裁는 「가이», 「나이», 「자이」로 풀어서 발음하지 않고, 「개», 「내», 「재」로 발음되는 例外도 있다. 愾字와 迺字는 一字多音 進行인데도 중모음을 풀어서 발음하지 않고 「개», 「내」로 발음하였고

裁字는 一字一音進行으로 이것도 중모음을 풀어서 발음하지 않고 「재」로 발음하였다.

(2) 漢字도 없이 아무 뜻이 없는 「애」를 발음하는 例

종묘악장에서는 아무런 뜻이 없는 「애」가 많이 나오는데 故 김기수 선생의 말에 의하면 악보에 기록되기는 「애」로 되어 있으나 이 「애」 발음은 너무 밝고 바라진 「애æ」 발음이 아니고 「애æ」와 「에e」의 중간 정도로 약간 어둡게 발음해야 한다고 한다. 아무런 뜻이 없는 「애」 발음은 종묘악장에서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가. 「애」가 규칙적으로 삽입된 例

종묘악장에서 「애」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쓰여진 곡은 주로 5음으로 된 가사에서 每 5음 1句가 끝날 때마다(순용은 每 4음 1句마다) “鼓의 3連打와 그에 따른 1音의 여섯번 반복”<sup>5)</sup>에서 아무런 뜻이 없는 「애」 발음이 지속된다.

例 영신회문-4회, 전폐회문-4회, 인입회문-4회, 현미-4회, 대유-4회, 소무-4회, 순용-5회

5음이나 4음 每 1句가 끝날 때마다 「애」가 들어가는 것 이외에도 第2句와 第4句 중간에 「애」가 나오는데 第2句에서는 4번째 글자 다음에 「애」가 나오고 第4句에서는 2번째 글자 다음에 「애」가 나온다. 그러나 소무의 第2句에서는 2字 다음에 「애」가 한 번 더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것과 同一하게 「애」가 출현한다. 그리고 4음 4句인 순용에서는 1, 2, 3句의 둘째字 다음과 셋째字 다음에 「애」가 더 나온다. 이것으로 보아 5음 1句로 된 曲보다 4음 1句로 된 曲에서 「애」가 더 많이 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애」가 불규칙하게 삽입된 例

주로 5음 1句로 된 곡에서는 「애」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삽입되었으나 4음 1句로 된 진찬(4음 6句), 기명(4음 4句), 독경(4음 4句), 선위(4음 12句), 칠번두(4음 6句), 송신악(4음 6句)과 3음으로 된 탁정(3음 6句), 신정(3음 9句), 정세(3음 6句) 등에서는 아주 불규칙하게 「애」가 출현한다. 여기에 나오는 「애」는 5음 1句가 끝날 때마다 보였던 형태는 한 번도 없고 글자 중간 중간에 나온다. 이들 중에서 第1句

5) 李惠求, 앞의 책, p. 76.



에서 「애」가 출현하는 예는 기명뿐이고, 진찬, 칠변두, 송신악의 第3句에서 각각 「애」가 한번씩 나오고 주로 4, 5, 6句에서 「애」가 많이 출현한다. 그리고 형가(4言 6句)의 第2句와 분옹(4言 10句)의 第9句, 혁정(4言 12句)의 第1句에서 각각 단 한번씩 「애」가 출현하였고, 비교적 句數가 많은 귀인(4言 12句), 죽녕(4言 8句), 용화(4言 12句), 열광정명(4言 12句), 중광(4言 8句), 역성(4言 8句), 총유(4言 8句), 영관(4言 8句) 등에서는 「애」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5言으로 된 곡에서는 「애」가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나타났고, 글자 수가 적은 4言 1句이거나 3言 1句이면서 句數가 적은 곡에서는 「애」가 많이 나타났고 句數가 8句 이상인 곡에서는 「애」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종묘악장에서 「애」의 삽입은 句數가 적은 가사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사용된 것 같기도 하다.

즉 종묘악장의 「애」의 삽입은 여러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기존의 음악에 다른 가사를 얹어 부르는 과정에서 파생된 산물인 것 같다.

### Ⅲ. 子音 發音法

子音에는 無聲子音과 有聲子音이 있다. 노래를 부를 때(咏言) 우선 모음을 길게 발음하고 그 음 끝에서 자음을 붙인다. 모음을 발음하고 나서 붙이는 자음이 무성 자음일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의 박자 길이대로 모음을 발음하고 그 음 맨끝에서 자음을 붙일 수밖에 없지만 그 받침이 유성자음일 경우에는 그 받침자음을 붙이는데 있어서 융통성이 있으며 이에따라 파생되는 음악적인 효과는 꼭 다르다고 하겠다. 필자가 故 김기수 선생으로부터 직접 종묘악장을 배울 때 “종묘악장에서 「ㅇ」, 「ㄴ」, 「ㄹ」, 「ㅁ」 즉 유성자음은 가곡의 자음발음법과는 달리 미리 자음을 붙여 콧소리(Humming)를 지속하라”고 하였다. 종묘악장에 나타난 유성자음의 발음을 붙이는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유성자음 「ㅇ」의 발음법

종묘악장 발음법에서 유성자음 「ㅇ」 붙임은 대개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고 다

음 출현음에서 「ㅇ」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한다. 선율진행에 따라서 「ㅇ」을 붙이는 用例은 다음과 같다.

(1) 一字多音 下行旋律進行

1)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짧은 2도위 음을 거쳐 下行하는 다음 출현음에서 유성자음 「ㅇ」를 붙여 지속하는 例

영신회문

사 - - - ㅇ - - - -

영신회문想

<악보 2>

- 영신회문—想, 形, 聲, 明
- 전폐회문—將
- 인입회문—昌, 盛, 頌
- 기명—命
- 귀인—從
- 즁명—城
- 융화—東, 孔
- 현미—寧, 望, 隆, 讓, 明
- 열광정명—疆
- 중광—昌
- 대유—光, 方
- 독경—慶
- 탁정—征, 昌
- 선위—明
- 분용—用
- 총유—動

정세 - 定, 靖

혁정 - 烝

영관, 칠변두 - 盛

2)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그 끝을 흘러내리거나 ( ㄱ ), 흘러내렸다가 다시 밀어올리며 ( ㄴ ) 하행하는 다음 출현음에서 「ㅇ」 자음을 붙여 지속하는 例



<악보 3>

영신회문 - 成

전폐회문 - 筐

진찬 - 登

형가 - 命

기명 - 慶, 永

인입회문 - 章

귀인 - 從

즙녕 - 寧, 籠

열광정명 - 弘

증광 - 誠, 正

대유 - 燿

역성 - 隆

소무 - 用

탁정 - 亡, 永

선위 - 蒼, 堂

정세 - 炳

혁정 - 壤, 康, 穰

영관-形

(2) 一字多音 上行旋律進行

1)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고 2도 위 음으로 올릴 때 유성자음 「ㅇ」을 붙여서 다음 上行旋律을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악보 4>

귀인-降

용화-隆, 航

열광정명-貞, 光

역성-光

탁정-獫

신정-正

총유-用

혁정-風, 冢, 穰, 豊

영관-永

2)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짧은 2도 위 음을 거치지 않고 다음 上行 출현음에서 유성자음 「ㅇ」을 붙여 콧소리를 지속하는 例



<악보 5>

준녕-雙, 封

열광정명-明, 桑, 永

중광-重

역성-光

선위-僧, 揚

신정-動

충유-籠, 東, 宮

혁정-當

송신악-洋, 旋, 髣

3) 한 음을 굽게 요성하는 것과 같이 2도 위 아래로 오르내릴 때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고 다음 上行音에서 「ㅇ」 자음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며 ㅇ - -  
귀인 明

<악보 6>

귀인-明, 景

열광정명-寧, 定

중광-宗, 永

대유-明, 煌

역성-方

소무-競

선위-能, 紅

신정-蟾

분용-用

혁정-永

4)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짧은 2도 아래음에서 유성자음 「ㅇ」을 붙여 콧소리로 上行旋律을 지속하는 例



<악보 7>

형가-景

탁정-雙, 城

(3) 1字1音進行

한 字에 출현음이 한 음일 경우에 처음에 모음으로 발음하여 대개 그 음 時價의 중간을 지나서 유성자음 「ㅇ」을 붙여서 콧소리로 지속한다.

1) 1字 1音 2拍인 例



<악보 8>

전폐회문-承, 기명-衆, 형가-亭, 죽녕-命, 음화-從, 열광정명-良, 剛, 藏, 중광-光, 대유-重, 역성-功, 선위-張, 梁, 明, 신정-勇, 亢, 定, 분옹-霆, 平, 순옹-行, 稱, 총유-漿, 迎, 淸, 혁정-穹, 幪, 風, 降, 慶, 用, 成, 영관-功, 蕩, 用, 철변두-印, 香, 成, 송신악-康, 洋, 소무-場(3拍)

2) 1字1音 1拍인 例

전폐회문-尙, 인입회문-炳, 형가-繩, 음화-明, 靈, 혁정-亡, 영관-程

## 2. 유성자음 「ㄴ」의 발음법

종묘악장 발음법에서 有聲子音 「ㄴ」도 「ㅇ」의 경우와 같이 대개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고 다음 출현음에서 「ㄴ」자음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한다. 선율진행에 따라서 「ㄴ」을 붙이는 用例를 살펴보겠다.

### (1) 1字多音 下行旋律進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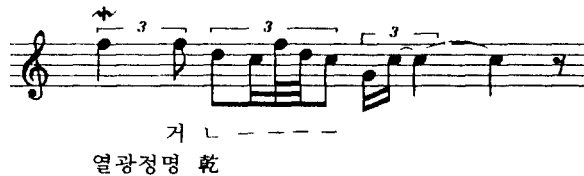
1)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짧은 2도 위 음을 거쳐 하행하는 다음 출현음에서 유성자음 「ㄴ」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악보 9>

영신회문-薦, 진찬-爨, 인입회문-願, 言, 즈녕-漫, 용화-駿, 仁, 현미-敦, 열광정명-贊, 중광-顯, 역성-善, 소무-建, 선위-誕, 元, 嘽, 분옹-連, 安, 氛, 建, 혁정-愆, 영관-靚

2)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하행하는 다음 출현음에서 「ㄴ」자음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악보 10>

열광정명-乾, 嘽

3)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그 음 끝을 흘러내리거나(ㄴ) 혹은 흘러내렸다가 다시 밀어올리며(ㄴ) 하행하는 다음 출현음에서 「ㄴ」자음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악보 11〉

영신회문-神, 역성-聞, 變, 줍녕-民, 선위-渙, 曄, 열광정명-歎, 亂, 대유-文, 혁정신정-天, 순옹-贊, 송신악-神, 雲

(2) 1字多音 上行旋律進行

1)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고 2도위 다음 출현음에서 「ㄴ」 자음을 붙여 上行旋律을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악보 12〉

귀인-顯, 줍녕-安, 열광정명-欠, 탁정-桓, 선위-敦, 충유-天, 震, 혁정-幡, 年

2)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上行하는 다음 출현음에서 「ㄴ」 자음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악보 13〉



죽녕-漚, 음화-遠, 증광-顯, 峻, 선위-巾, 신정-旋, 분옹-連, 神, 영관-萬,  
 칠변두-然, 혁정-賢, 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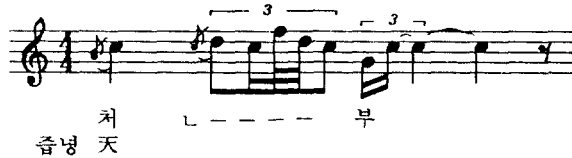
3)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짧은 2도 아래음에서 「ㄴ」 자음을 붙여 다음  
 上行旋律을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악보 14>

형가-春, 음화-欸

4)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그 음 끝에서 「ㄴ」 자음을 붙여 다음 上行음을  
 거쳐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악보 15>

죽녕-天, 탁정-頑, 정세-爚, 神, 영관-進

(3) 1字1音進行

한 字에 출현음이 한 음일 경우에 처음에 모음으로 발음하여 대개 그 음 시가의  
 중간을 지나서 「ㄴ」 자음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1) 1字1音 2拍인 例

진찬-芬, 인입회문-孫, 귀인-仁, 현미-難, 소무-春, 文, 독경-先, 선위-洋,  
 神, 분옹-奮, 堅, 순옹-諫, 亂, 運, 神, 斷, 返, 충유-順, 정세-臣, 칠변두-遷, 虔,



<악보 16>

2) 1字1音 1拍인 例



<악보 17>

귀인-天, 仁, 줍녕-建, 음화-神, 대유-宣, 소무-天, 신정-翰, 혁정-前, 親

3. 유성자음 「ㄹ」의 발음법

중요악장 발음법에서 유성자음 「ㄹ」도 「ㅇ」이나 「ㄴ」 자음과 같이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고 다음 출현음에서 「ㄹ」 자음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한다. 선율진행에 따라서 유성자음 「ㄹ」을 붙이는 用例를 살펴보겠다.

(1) 1字多音 下行旋律進行

1)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짧은 2도위 음을 거쳐 다음 下行音에서 「ㄹ」 자음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음화, 줍녕, 영관-厥, 역성, 열광정명-烈, 선위-擘, 혁정-不, 송신악-卒(두 음을 거쳐서 下行)

허기 귀 - 리 - - - - - 려  
응화 厥

〈악보 18〉

2)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그 음 끝을 흘러 내리거나(ㄴ), 그 음 끝을 흘러 내렸다가 다시 밀어올리며(ㄴ) 다음 下行출현음에서 「리」 자음을 붙여 지속하는 例

부 리 - - - - - 지  
즘녕 不

〈악보 19〉

진찬-菘, 기명-日, 즘녕-不, 역성-日, 독경-遙, 선위-矢, 총유-烈, 철변두-撤, 인입회문-蔚

(2) 1字多音 上行旋律進行

1)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고 짧은 2도위 음에서 「리」 자음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조 리 - - - - - 보 기  
즘녕 卒

〈악보 20〉

즘녕-卒, 신정-厥, 총유-悅, 혁정-不, 迄, 영관-列

2)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고 다음 上行출현음에서 「ㄹ」 자음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악보 21>

대유-列, 역성-率, 영관-曷

3) 한 음을 굵게 요성하는 것과 같이 2도 위 아래로 오르내릴 때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고 2도 위 음으로 올릴 때 「ㄹ」 자음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악보 22>

즙녕-日, 용화-厥

(3) 1字1音進行

한 자에 출현음이 한 음일때 처음에 모음으로 발음하여 대개 그 음 시가의 중간을 지나서 「ㄹ」 자음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한다.

1) 1字 1音 2拍인 例

열광정명-厥, 선위-跋, 분웅-拂

(소무의 列字는 셋째 拍에서 「ㄹ」 자음을 붙이고 烈字는 넷째 拍에서 「ㄹ」 자음을 붙이며, 즙녕의 不字와 송신악의 鬚字는 음 끝에서 퇴성하여 「ㄹ」 자음을 붙이는 例外도 있음.)



<악보 23>

2) 1字 1音 1指인 例

인입회문一列

#### 4. 유성자음 「ㄱ」의 발음법

종묘악장 발음법에서 「ㄱ」 유성자음도 「ㅇ」, 「ㄴ」, 「ㄹ」 자음과 같이 대개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고 다음 출현음에서 「ㄱ」 자음을 붙여서 콧소리로 지속한다. 선율진행에 따라서 「ㄱ」 자음을 붙이는 用例를 살펴보겠다.

(1) 1字多音 下行旋律進行

1)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그 음 끝을 흘러 내렸다가 다시 밀어올리며(ㄴ) 다음 下行 출현음에서 「ㄱ」 자음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악보 24>

전폐회문一歎, 용화一南, 열광정명一歎, 분웅一險

(2) 1字多音 下行旋律進行

1)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고 다음 上行출현음에서 「ㄱ」 자음을 붙여 콧소리로 지속하는 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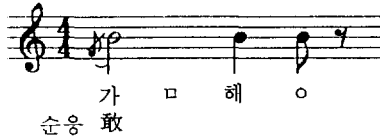
〈악보 25〉

현미-歎, 열광정명-숨

(3) 1字1音進行

1字 1音일 경우에 처음에 모음으로 발음하고 대개 그 음 시가의 중간을 지나서 「口」 자음을 붙여 지속한다.

1) 1字 1音 2指인 例



〈악보 26〉

순웅-敢

5. 有聲子音의 特例

귀인의 不, 失, 선위의 一, 전폐회문의 心, 철변두의 秘字는 上記한 유성자음의 붙임새와는 달리 무성자음을 붙이는 방식으로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계속 모음으로 진행하다가 선을 맨끝에서 유성자음을 붙인다. 이들 가락들은 모두 긴 高音進行旋律로서 上記한 유성자음을 붙이는 例와 같이 첫음을 모음으로 발음하고 두번째 출현음부터 유성자음을 붙여 高音선율을 콧소리로 계속 진행하기는 매우 힘들 것 같다. 그리하여 特例가 생긴 듯 하다.



〈악보 27〉

## 6. 「ㅎ」 발음의 삽입

종묘악장에서 가끔 노래 도중에 「ㅎ」 발음이 나오는 예가 더러 있는데 이것은 대개 두 가지로 쓰인다.

1) 속목을 낼 때 「ㅎ」 발음이 들어가는 예

남창가곡에는 속목(Falsetto)이 전혀 쓰이지 않지만 종묘악장에서는 남성 특유의 속목이 쓰인다. 이 속목은 주로 高音域에서 쓰이는데 장식음을 속목으로 낼 때 「ㅎ」 발음이 나오게 된다.



〈악보 28〉

전폐회문-先(서-흥 ㄴ), 진한-(踏(처-흥-ㄱ), 인입회문-願(위-흥 ㄴ), 言(어-흥 ㄴ), 죽녕-天(처 ㄴ 흥), 탁정-桓(화 ㄴ 흥), 애(애-흥), 신정-厥(귀 ㄴ 흥), 애(애-흥).

2) 특정 장식음(ㄷ, ㄴ, ㄱ)을 낼 때 「ㅎ」 발음이 들어가는 예

ㄷ표는 본음보다 한 음 아래음과 한 음 높은 음을 급속히 붙여내는 접 앞꾸밈음 표인데 이 장식음과 함께 나타난 「ㅎ」 발음은 5도 아래로 툭 떨어지면서 힘차게 ㄷ 장식음을 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발생적인 발음인 것 같다.

ㄴ 표는 현악기의 轉聲과 같은 장식음인데 이 구르는 장식음과 함께 나타난 「ㅎ」 발음은 4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음을 힘차게 구르는 과정에 생기는 자연발생적인 발

음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는 2도 아래음으로부터 밀어 올려내는 장식음인데 이 장식음과 함께 나타난 「ㅎ」 발음은 음을 밀어 올릴 때 약간 힘을 주게 되므로해서 생기는 자연적인 발음으로 생각된다.



〈악보 29〉

#### IV. 맺음말

종묘악장에 쓰인 250餘 漢字의 단모음 중에서 기(既, 基, 奇, 幾)字 비(霽)字는 단모음으로 발음되지 않고 중모음으로 발음되어서 「그이」나 「부이」로 풀어서 발음된다. 이들 기字는 옛날에는 「기」로 발음되던 중모음이었는 데 노래가사에 쓰였기 때문에 변화없이 옛날 발음이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다.

종묘악장의 중모음 발음법은 중모음을 풀어서 발음하는 형태와 중모음을 풀지 않고 발음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중모음을 풀어서 발음하는 例는 「의」(의-義, 儀, 猗, 회-齏, 颯)는 대개 「오이」로 발음하고 「외」(외-賚, 賴, 회-懷, 回, 會)는 「오이」로 발음하고, 「애」(大, 海, 載, 乃, 來, 僂, 配)는 「아이」로 발음하며, 「위」(婦, 爲, 揮, 委)는 「우이」로 풀어서 발음하여 중간에 모음변화를 주고 있다. 그러나 愾(개), 迺(내), 裁(재) 字는 중모음인데도 풀어서 발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

종묘악장은 순한문 가사인데도 漢字音이 아닌 「애」가 많이 나온다. 한자음도 아닌 아무런 뜻이 없는 「애」로 기록된 발음은 「애」와 「에」의 중간으로 발음하여 두 가지 형태로 쓰이고 있다. 이 「애」 발음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쓰여진 곡은 주로 5 음이나 4음으로 된 가사에서 每 1句가 끝날 때마다 鼓의 3連打와 함께 쓰이고 있으며 5음 1句에서 보다 4음 1句로 된 곡에서 「애」가 더 많이 출현한다.



종묘악장에서 3음이나 4음 1句이면서 句數가 적은 곡에서는 「애」가 많이 나타났고 句數가 많은 8句 이상인 곡에서는 「애」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종묘악장의 「애」는 기존의 악곡에서 다른 가사를 엮어 부르는 과정에서 생긴 즉 공간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유독 「애」 발음을 넣었는지는 알 수 없다.

종묘악장의 발음법 중에서 가장 독특한 발음법은 유성자음 「ㅇ」, 「ㄴ」, 「ㄹ」, 「ㄹ」의 발음법이라고 하겠다. 이들 4가지 유성자음의 발음법의 공통점은 첫음에서 모음으로 발음하여 다음 출현음에서 유성자음을 붙여서 콧소리로 계속 진행하는 점이다. 그리고 1音 2拍이나 1音 1拍 안에서 유성자음이 쓰일 때도 처음에 모음으로 발음하여 그 음 시가의 중간에서부터 유성자음을 붙여 지속한다. 그러나 가락이 高音域에서 진행될 때는 무성자음을 붙이는 방식대로 유성자음을 그음 끝에서 붙이는 특례가 있는데 高音域에서 콧소리로 계속 진행하려면 몹시 힘이 들기 때문인 것 같다.

## 참고 문헌

- 이혜구 주역, 「세종장헌대왕실록」 2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2)  
김기수 엮음, 「보태평·정대업의 악장과 일무보」, (국립국악원, 1971)  
김기수, 「한국음악」 제 2 집(전통음악연구회, 1981)

# The Rule of Diction in the Text of Chongmyo

Kim, Chǒng-Ja

Professor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ext in the music of Chongmyo was created during the Sejong reign of Chosŏn dynasty. It was used in *munmu* and *mumu* but during the Sejo reign, it began to be used for Chongmyo Ancestral Shrine Music as it is heard today.

The following is the rule of text diction of the Chongmyo based on 13 songs of Chǒngdaeup and 14 songs of Potaepyǒng that have been mensurally notated by the late Ki Soo Kim and that is used by the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Center today.

## Rule of Diction of Single Vowel Text

Of the some 250 single vowel characters found in the Chongmyo text, the word ‘gi’ 既, 基, 奇, 幾, is not pronounced like the ‘gi’ of today’s language but as ‘geu-i’. But these four words were originally written as ‘geu-i’ (compound vowel character) in Old Korean and today, this old style of diction is intact in the Chongmyo music.

## Rule of Diction of Compound Vowel Text

Most of the compound vowel syllables are pronounced by separating the two vowels. ‘Eui’ of 義, 儀, 猗, are pronounced as ‘eu-i’ : ‘weh’ of 賚, 賴, 懷, 回, 會, 摧, becomes ‘o-e’ : ‘eh’ of 大, 海, 載, 乃, 來, 優, 配, becomes ‘ah-eh’ : and ‘we’ of 婦, 爲, 揮, 委, becomes ‘oo-e’.

The Chongmyo's text consists of purely Chinese characters but the word 'ae' that which is not Chinese, is found quite often in the songs. Although, the word is written as 'ae', but the actual pronunciation is somewhat between 'ae' and 'eh' and is used in two ways. At the end of every text phrase in a song phrased into 4 or 5 characters, the word 'ae' is sung at the end along with the three hits of the drum. In songs that are phrased into 4 characters but are short in the entirety of the piece, along with songs phrased into 3 characters, the 'ae' occurs inconsistently. In songs that have 8 or more phrases, the 'ae' never occurs. Thus, one concludes that the using of 'ae' in Chongmyo text is a way of filling the gap between phrases. But one can not conclude the reason of using the 'ae' pronunciation for this purpose.

#### The Rule of Diction of Voiced Sound Text

Among the text in Chongmyo, the most unique rule of diction applies to that of the voiced sound characters, the ng, n, l and the m in complex syllables. The characteristic of these 4 sounds allow them to be used in cases where there are more than one note to one character. In example, one would pronounce the first consonant and the vowel on the first note and then conclude the rest of the word with the last consonant being pronounced on a second note in a nasally tone. And even in cases where there may be only one note to one complex syllable, the first part up to the vowel is pronounced on the beat and then the final consonant follows in the middle of the beat to conclude the entire character. But, in the case where the melodic line is high, because it would be difficult to hold a nasally tone for long, this rule is broken. Instead, the rule of non-voiced sounds replaces this. The first part of a complex syllable is held near to the end of the note's duration at which point the last consonant is added to conclude the word before the next beat.

\* complex syllable-words that start and end with consonants

(with vowel in between)

ex) mom, pub